

강현욱 이사장, 교수평의회 의장 등 4명 고소

“조선대 총장선출 관련 심각한 명예훼손”

조선대 강현욱 이사장 등 조선대 법인 관계자들이 제14대 총장선출 결과에 불복해 총장과 이사진의 퇴진을 촉구한 대학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법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 직무대리가 고소인이라는 점에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동부경찰은 “최근 강현욱 이사장과 이상열 총장 직무대리 등 조선대 법인 관계자 5명이 김수중 교수평의회 의장 등 ‘2등 총장 사퇴 및 이사진 퇴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비대위가 전호중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학교

곳곳에 걸어 대학과 이사회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이사장과 총장이라고 적힌 관(棺)을 들고 교정을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총장 집무실에 관을 안치하는 등 개인과 학교의 명예훼손은 물론 학사행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이번 고소가 새로운 총장 선출을 앞두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대학 당국이 전호중

총장 사퇴를 불러왔던 비대위에 대한 공개적인 대응으로 보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해 9월 총장선거 결과 2위로 이사회에 추천된 전호중 전 총장이 이사회에서 새 총장에 임명되자 탈락 후보 등이 반발해 갈등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전호중 총장은 사퇴했다.

이와 함께 총장선거 결과 1위로 추천됐다가 탈락한 서재홍 교수는 전호중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약중독 사망은 계면활성제 독성 탓” 순천향대 연구팀

세제와 비누, 농약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첨가제로 두루 쓰이는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팀 홍세용 교수 연구팀에 의해 제시됐다.

특히 연구팀은 상당수 ‘농약중독’이나 이에 따른 사망이 실제로는 계면활성제의 독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과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여수도시공사 채용비리 적발

고득점자 배제 사장 임의로 후순위자 선발...6명이 당락 뒤바뀌어

여수도시공사가 인사과정에서 고득점자를 떨어뜨리고, 사장 의사에 반역해 후순위자를 무더기로 채용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중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 등 14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수도시공사가 지난 2008년 11월 기술직 3급(팀장) 경력사원 공채에서 필기와 면접시험 고득점자를 배제하고 사장 마음대로 후순위자를 채용했다.

이 공기업은 또한 2009년 4월에는 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하면서 필기와

면접시험 고득점자를 무시하고, 사장 임의로 후순위자를 채용해 응시자 6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 A시의 도시개발공사는 일반직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44대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B시청 국장의 자녀를 최종 선발하는 등 지자체 공기업들의 특혜 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관리를 통해 정실 인사와 토착 비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공기업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자로부터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한 후, 민간투자자에 이전하는 민간대행사업 방식이 공기업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가장학금, B학점 기준 부당”

참여연대 “든든하자금 C학점 완화한 것과 형평성 문제”

참여연대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은 올해 국가장학금 제도가 장학금 수령 조건으로 평점 B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은 5일 배포한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 I·II 유형 지급 기준으로 평점 B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 학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교육과학기술

부 추진체에 따르면 지난해 평점 B학점 미만은 받은 대학생은 전체의 약 25%”라며 “현재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든든장학금(ICL) 신청 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으면서도 국가장학금 기준은 B학점으로 그대로 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들 단체는 비판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6분

달출몰 14시 57분
달질 04시 48분

대체로 맑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았다.

광주	구름많음	-4/5°C
목포	구름많음	-4/4°C
여수	맑음	-3/6°C
나주	구름많음	-7/6°C
완도	구름많음	-3/5°C
구례	구름많음	-7/5°C
강진	구름많음	-4/5°C
해남	구름많음	-5/5°C
장흥	구름많음	-5/5°C
순천	구름조금	-3/6°C
영광	구름많음	-6/3°C
진도	구름많음	-3/5°C
전주	구름많음	-6/3°C
군산	구름많음	-6/2°C
남원	구름많음	-11/3°C
홍산도	구름많음	2/5°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목포 12:29	05:0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07:31	00:50	
			19:28	13: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최저/최고	-5/6	-3/5	-2/5	-2/5	-3/4	-6/4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평가결과 각각 11위, 12위에 그쳤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예산투자 ▲진로교사 확보

▲진로와 직업교과 채택 등 3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순위를 5단계로 구분해 ▲1~3위인 대전·경남·대구가 ‘매우 우수’ ▲4~6위인 부산·충남·서울이 ‘우수’ ▲7~10위인 충북·인천·제주·경북은 ‘보통’ ▲11~13위인 광주·전남·울산은 ‘미흡’ ▲14~16위인 경기·강원·전북은 ‘매우 미흡’ 평가를 각각 받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